

작은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 목회에 관한 연구

: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희조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9년 5월

Copyright © 2019 Heejo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Community Outreach Ministry of a Small Immigrant Church
A Case Study of Living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New Jersey, U.S.A.

Heejo Lee

Living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New Jersey, U.S.A.

The Living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s a small immigrant church. The congregation is older, and they have insulated themselves. They do realize how privileged they are to live in America. Lacking is an understanding of how their small group could be revitalized by sharing Jesus' love with the community. They focus instead on their own personal problems or difficult situation of the church.

Through a question of how to make a difference, we started with the basics: Many of my sermons dealt with the needs of others. The focal point of my individual conversations and fellowship emphasized the same topic. One Friday night, we had a breakthrough as one of our congregants arrived with some canned food. This spurred other members, and soon a sizeable portion of the whole congregation was bringing food on a regular basis. We researched charitable organizations who would need our help. We include both secular and non-secular organizations and decided to team up with a group from a local community.

It has become evident that formerly the Living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focused on their own needs, and their concern was to see their own church grow. Now they pay attention to their community. They comprehend how being more active in the community has impacted their own church in a noticeably positive way.

국문초록

작은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 목회에 관한 연구

: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희조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미국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는 작은 이민 교회로 교인들이 연로하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여유도 없이, 교회 안의 어려움에 집중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리빙스톤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비교적 안정된 이민자의 삶에 정착해가고 있지만, 작은이민교회도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교회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관심이 교회 안으로 우선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진취적인 변화를 바라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 먼저 설교 중에 나누기 시작했다. 때로는 개인적인 대화나 친교 때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와 발단이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금요일 야예배 시간에 한 가정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에서 통조림 식품을 쇼핑백 가득히 가져왔다. 이 일의 시작으로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은 식품을 지속적으

로 모으게 되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교회에 동기 부여와 열정을 가져 오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과 적절한 도울 방법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찾으며, 지역사회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종교적인 봉사 단체들도 있고, 그 외에 공공 단체나 사회봉사 단체들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리빙스톤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지역사회봉사를 함께 할 곳을 결정하여 실행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리빙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교회 안의 상황과 처지에 집중했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작은 이민 교회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상호관계가 형성되었다. 지역사회봉사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교회에도 눈에 띄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앞으로 교회가 좀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방안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목차

감사의 글	vii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논문의 구조	4
II. 작은 이민 교회 이해	6
작은 교회의 정의	6
작은 이민교회의 성경적 이해	10
III. 지역사회봉사의 이해	19
지역사회 봉사란	19
지역사회 봉사의 성경적/신학적 이해	19
IV. 작은 이민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33
교회와 지역의 상황	33
지역사회봉사의 필요성	37
지역사회봉사의 방법	53
지역사회봉사의 실행	72
V. 결론	91
참고 문헌	94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그 동안의 학업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부르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나의 학업과 이 논문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님들-레너드 스윗 교수님,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언제나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커다란 고마움을 전한다. 매일같이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던 가족들의 믿음과 사랑을 잊지 못한다. 이 논문을 쓰는 동안 나의 가장 큰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끊임 없이 인도해주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린다.

2019년 5월에

이희조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교회가 한 지역의 중심에 자리해 있으면서도, 주일 하루 교인들에게만 교회의 존재가 인지 되곤 한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내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보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담을 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한인 이민 교회들이 선교에 열정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라도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한다.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리빙스톤교회)도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곳에 선교 가서 봉사 하지만 교회 바로 곁에 이웃의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와 같지 않다. 선교의 열정처럼

교회건물 밖의 이웃을 찾아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에 있다. 교회 앞의 거리나 주변지역의 구석진 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지역사회가 이민교회의 가까운 이웃이기에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다른 민족들이 자신의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 리빙스톤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따뜻한 도움으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야 한다. 서로 달라서 다가서기 어려워하기 보다 다른 이방인과 소외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민 땅에서 이민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힘들게 사는 이민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돕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몸도 불편해가고 힘들고 지친 이민의 노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리빙스톤교회가 그런 어려웠던 이민의 삶을 생각하며,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때 작은 교회라 해서 주저하게 되며 교회 자체 유지를 위해 집중하게 된다. 작은 규모인 리빙스톤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는 어떤 규모로도 도전하며 나가서 교회가 지역의 이웃인

것을 사랑으로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이민 교회도 현상유지와 구습을 지속 하는 것보다 변화와 미래의 가능성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지역사회봉사다. 지역사회 안에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 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때 교회에 생동감과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세상 속에도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 작은 이민교회로서 이러한 새 일을 의욕적으로 감당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리빙스톤교회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논문은 작은 이민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살펴 보게 된다. 먼저 문헌을 통해 작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지역사회봉사의 유형들과 방법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작은이민교회로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역과 교회의 특징을 고려해서 다른 봉사단체와 연합 사역을 하면서 작은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봉사의 많은 접근 방법 중에서 급식의 도움에 대한 방향으로 선별되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로 되어있다. 문헌 연구는 주로 관련된 서적들을

참조 하였고, 사례 연구는 리빙스톤교회의 지역사회봉사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영향력이 되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다양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제1장에서는 논문의 필요성, 연구의 방법, 논문의 구조에 관해 다루려 한다. 제2장에서는 작은 이민 교회의 이해를 다루면서 작은 이민 교회에 관한 정의와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지역사회봉사란 무엇인가와 지역사회봉사의 성경적, 신학적이해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작은 이민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를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본다. 이 때 교회의 대략적 상황과 지역의 상황을 알아본다. 또한 지역사회봉사의 필요성을 교회의 사명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회봉사의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은 교회가 이웃에 다가서는지 다루게 된다.

이어서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 지역사회봉사의 실행을 다룬다. 첫째, 이 실행에서 지역사회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와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소개한다.

둘째, 이 프로젝트 준비와 실행에서 세 방법과 네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세제, 실행 후에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 II 장

작은 이민 교회 이해

작은 교회의 정의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 안에서 이민 교회와 미국 교회 그리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각각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작은 이민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하려고 할 때 작은 교회로서 특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먼저 “작은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의 60퍼센트가 100명 이하의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¹ 주일 예배 참석 인원내 따라 교회의 규모가 구분되는데 작은 교회를 100명 미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² 200명 미만을 작은 교회, 100명 미만을 매우 작은 교회로 세분화 하기도 한다.³ 때로는 큰

¹ Outreach Magazine, “Small Church America – Revisited,” last modified May 16, 2018, <https://outreachmagazine.com/features/small-church/29514-small-church-america-revisited.html>.

² Cynthia Woolever and Devorah Bruce, *Leadership That Fits Your Church: What Kind of Pastor for What Kind of Congregation* (St. Louis: Chalice Press, 2012), 28.

³ John Jackson, *God-Size: Beyond Growth for Your Growth's Sake Churc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64.

교회를 300명에서 2000명으로 그리고 중간 교회를 50명에서 300명 미만으로 간주하고 50명 미만을 작은 교회라고 구분하기도 한다.⁴ 이 경우 등록 교인 숫자가 아니라 예배 참석 인원만을 주 평균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물론 예배 참석인원이나 등록 교인의 숫자로 교회 크기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교회건물 크기나 예배당 좌석수로 교회 크기를 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견해는 일반적이지 않다.

다른 관점에서 교회 규모

좀더 넓은 관점에서 교회 규모는 매년 세례 받는 새 교인의 숫자나, 지역사회봉사와 선교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 교회 크기를 표현할 때는 양육과 제자화 그리고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척도가 있다. 그 밖의 교회 재정 상황도 포함되는데,⁵ 그 재정이 교회의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혹은 선교와 구제와 제자화를 위해 비전 지향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행정과 사역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집중되어 있는지 고려된다. 또한 지쳐있고 안주해 있으며 타성에 젖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적 역량으로

⁴ USA Churches, "Church Sizes," <http://www.usachurches.org/church-sizes.htm>.

⁵ Robert J. Stonebraker, "Allocating Local Church Funds to Benevolence: The Impact of Congregational Siz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5, no. 1 (2003): 50, accessed March 10, 2019, doi:10.2307/3512499.

교회의 규모가 정의 되어야 한다.⁶

또한 헌신하기를 원하는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 교회처럼 연로한 교인들이 많아 다른 사역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들이 고려된다.⁷ 이민교회에서는 연로한 교인들이 증가하는 한편 이민자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 30~50년전에 이민 온 교인들이 많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가 많고, 설령 예배 참석 수가 많을 지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작은 교회의 범주에 속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다. 한때는 재정이 충분했지만, 현재 교인은 줄고 매달 지급해야 되는 용자금 할부로 인해 오히려 작은 교회 같은 재정 수준의 교회도 있다. 작은 이민교회에서는 부교역자나 어린이 담당 사역자가 없어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는 반주자를 구하지 못해서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은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여러 목사들이 보는 관점과, 각각의 교회와 교인들이 보는 것이 서로 다르다. 이전의 교회 출석 인원이 150명이었는데 지금 100명이 되었다면 어려운 경우로 여긴다. 왜냐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⁶ Roger Finke, "The Quiet Transformation: Changes in Size and Leadership of Southern Baptist Churche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6, no. 1 (1994): 8. accessed March 10, doi:10.2307/3511649.

⁷ Robert J. Stonebraker Robert, "Optimal Church Size: The Bigger the Bette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o. 3, (1993): 237. accessed March 10, doi:10.2307/1386662.

위축되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인수가 25명이었다가 100명이 되었다면 큰 교회라 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교회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활발하게 해나 갈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장과 감소의 상태나 과거와 현실의 숫자 변화가 교회 크기 따라 다르게 인식하게 하며, 교회가 안과 밖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의 척도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진취적으로 감당하려 할 때 많은 제한을 겪는다면 그것을 작은 교회로 여긴다.

반면에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10: 5-8) 또한 70명을 보내시며 각 동네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10:1) 예수님의 교회의 규모는 지역으로 나가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이 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며 활동적인 작은 예수의 팀이라는 것이다.⁸ 그러한 제자들의 구성원이 교회 규모의 척도가 된다.

작은 이민교회의 성경적 이해

작은 교회와 하나님 사이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고려할 때, 교회는 계획된 새로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교회의 규모로 미리 판단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교인 숫자에 의한 규모에만 치우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 존 잭슨(John Jackson)은 숫자와 외형으로 아무리 커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크기가 있고,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활기차게 실현해나가는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⁹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이즈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알아가려는 열정 생긴다. 하나님의 사이즈의 교회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팔을 걷어 부치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역학을 수행한다.

⁸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9), 178.

⁹ Jackson, *God-Size*, 37.

규모에 대한 현재 상황에 교회가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 이웃으로 향하는 사명과 비전을 위한 열정을 잃게 된다. 사람들의 눈과 계산으로 ‘작은 교회’ 라는 규모의 개념이 하나님의 눈과 사이즈 중심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제한한다.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야, 규모로 인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나갈 여력이 안된다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주신 심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서는 것이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이다. 재정과 인력을 계산하기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이다. 그런 하나님 사이즈의 교회는 불리한 조건들을 생각하며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는다. 교회 담 밖의 경계선을 제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향해 섬김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 나간다.

잭슨(Jackson)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투망이 너무 작다고 고기 잡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으로

스스로의 제한을 풀어서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 져야한다는 것이다.¹⁰

뻘어 나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붙들어 묶고 있는 것은, 현실성과 계산적인 생각이다.

교회는 다른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내어 드리는 사이즈로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환영 받는 작은 교회

현대사회가 점점 큰 것을 좋아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것을

부러워 하고 자랑스러워 한다. 사업장도 커야 하고 판매량도 많아야 되고 수익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회와 교회 건물도 커야 하고 교인 수도 많아야

한다.¹¹ 집도 커야 되고 어린 아이 성적도 높아야 하듯이, 모든 사이즈가 크길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과 작은 자와 작은 숫자도 중요하게 여기셨다.

또한 그것에 더 많은 사랑을 쏟기도 하셨다.¹²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경쟁사회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공의 잣대는 크고 많음에 달려있다고 여긴다. 모두가 그것에 온

마음을 쏟고,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자리나 높은 자리와 큰 자가 되고

¹⁰ Ibid., 61.

¹¹ Charity R. Carney, "Lakewood Church and the Roots of the Megachurch Movement in the South." *Southern Quarterly* 50, no.1, (2012): 68.

¹² Phil Needham, *When God Becomes Small*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4), 9.

싶어 그것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묻는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10:37)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조금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99마리의 큰 무리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룹과 작은 자 같은 한 마리의 소외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셨다.

세상이 이려고 있을 때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성도들도 이런 큰 교회를 선호하며 찾아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크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오히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작아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좌절해서는 안된다. 다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작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지역사회에 나가야 한다. 필 니드햄(Phil Needham)에 따르면 어떤 큰 실적과 업적이나 많은 진보를 아직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것을 만들어 갈 때, 작아도 진정으로 큰 교회임을 깨닫게 되며 설득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¹³ 보이는 업적으로 사람들의 눈길과 환호를 받을

¹³ Needham, *When God Becomes Small*, 20.

정도는 아니지만, 작은 정성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큰 힘이 되어 간다. 이런 사랑이 이웃에 전해지면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그들은 체험하게 된다. 그들은 결국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며 삶이 새롭게 뒀을 경험한다. 이럴 때 교회는 사이즈와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지며, 작은 교회를 통해 주님은 기쁘게 일하실 것이다.

주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2:7) 낮아지셨다. 그 뿐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

니드햄(Needham)은 예수님 자체가 마구간에서 임시 집 없는 어린아이가 되셨고, 목수에게서 나시고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 전까지 목수로 일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작은 자가 되시고, 또한 그 작은 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이다.¹⁴ 낮아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작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이 작은 이민 교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쏟아 부으신다. 작은 자와 외면되고 소외된 자들 함께 하신다. 병약자나 노약자, 가난한 자와 상한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통로로 주님은 작은 이민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적

¹⁴ Ibid., 41.

기준으로 책정된 작다는 것을 따르면 할 수 없는 이유와 장애물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주님도 기꺼이 낮아져서, 세상이 정해준 크기와 상관없이 사역을 하셨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

작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교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고 사랑의 손길을 나눌 때, 니드햄(Needham)은 바로 그 도움과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것이다.¹⁵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 주님도 계신다.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작은 교회가 있어야 한다. 작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작은 일에 온 정성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 환영 받는 교회다.

작은 교회로서 사명과 잠재력

성경에는 ‘벧엘’ 처럼 작지만 신성하고 중대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예수님도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많은 작은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다니셨다. 작은 곳이라고 외면되는 것도 아니다. 작은 장소도 중요했다. 하나님은 벧엘 같은 곳을 통해서 야곱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이다.¹⁶ 작다고 못하는 것도

¹⁵ Ibid., 46.

¹⁶ Ibid., 67.

아니요, 작다고 하찮게 여길 것도 아니다. 작은 이민 교회는 물리적인 잣대로는 작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이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통로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성장이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나 비전의 중심이 되어진다. 그 결과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적극성이 그 비전으로 인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하게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느껴야 한다. 로얄 스페이들(Royal Speidel)은 “하나님은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나 감소되고 있는 교회를 대형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교인 숫자의 교회를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적은 교인의 교회들이 잠재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한다.¹⁷ 하나님은 교회가 작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가능성에 도달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가끔 교회의 형편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보지 못하여 밖으로 발을 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의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자들에게

¹⁷ Royal Speidel, *Evangelism in the Small Membership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11.

나갈 때, 그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 시골의 교회가 적은 교인 수에도 불구하고 보호 센터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교회에 활력이 생겼으며, 도시의 작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단체를 통하여 노숙자들에게 ‘밤새 쉼터’의 공간을 제공하고 노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교인들의 기쁨이 눈에 띄게 더해 졌다는 것이다.¹⁸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생긴다.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기쁨이 함께 하며, 작은 교회가 최선의 가능성에 이르게 된다.

알맞는 크기의 작은 교회

교회가 앞만 바라보며 자신의 길(path)과 방안(recipe)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도 좋지만, “딱 맞는 크기(right size)”라는 관점을 보지 못하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교회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게 된다. 많은 교회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데이빗 레이(David Ray)에 의하면 더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지만,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 감소로 인해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압박과 부담이 늘어 간다. 그리고 주요 교단들의 목표와 성공적인 본보기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다.¹⁹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¹⁸ Speidel, *Evangelism in the Small Membership Church*, 92.

¹⁹ David R. Ray, *The Big Small Church Book*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1992), 25.

성공적인 교회로서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한다면 어려운 이웃의 외침을 외면하게 된다. 이제는 주변이 원하는 성공주의 교회를 따라가기 위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주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부담으로 전환하여 알맞는 크기의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 III 장

지역사회봉사의 이해

지역사회봉사란

지역사회봉사를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 는 의미와 “살기 좋은 환경과 조화로운 사회” 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이나 시간을 나누어 사랑을 실천하며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다.¹

지역사회봉사는 여러가지 지원 활동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에 참여하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봉사는 여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가능하다. 복지 시설이나 무의탁 노인 가정에서 봉사하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관과 노숙자 시설들에서 음식을 제공하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기도 한다. 또는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나르며 배달하는 일로 봉사한다.

¹ Dongguk University, “사회봉사란,” http://volunteers.dongguk.edu/?page_id=481.

동물보호센터에서 돕기도 하며, 공원같은 곳에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 운동을 하며 환경보전을 위해서 돕기도 한다. 때로는 주말에 지역 청소하는 일에 동참하여 환경 증진에 한몫을 한다. 인권옹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재난 지역에 구호활동을 펼치는 일을 하거나, 구호금 모음에 참여 하기도 한다.² 간단하게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선거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일을 도와 주기도 한다.

그밖에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아 주며, 노인들의 시장 보는 것을 돕거나 집 청소를 돌보는 일도 있다. 굶거나 집 없는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며, 도시락 못 가져가는 어린이들이나 홀로 배회하는 노인들과 어린아이 가장들을 찾아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도 한다. 정기적으로 음식과 옷을 모으거나 나누는 일을 하거나, 재정과 생필품 기부를 홍보하는데 동참한다. 그렇게 장, 단기적 자원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그러한 직업을 찾거나 훈련하는 곳에 가서 전문적으로 연수를 받기도 한다.

지역사회봉사의 성경적/신학적 이해

²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366 Community Service Ideas of 4-H & Youth ," <https://lancaster.unl.edu/4h/serviceideas.shtml>.

교회는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위해 여러가지 도움과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 중에서 소외된 자들이나 어려워서 기본적인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회가 선교나 전도의 한 부분으로 영혼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는 것처럼, 공공단체나 비영리 단체들도 이런 지역사회봉사를 끊임없이 실천 해오고 있다.

교회는 타국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반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관심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본다고 할지라도 무심히 지나치기 쉽다. 신명기 15장 7-8절의 말씀에서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신15:7-8)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교회에서 교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돌보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 있음에도 못 알아보거나 그냥 묵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 펼치는 것이 지역사회를 향한

예수님 사랑 실천이다. 모두가 상황이 힘들어도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전도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다.

실제로 영혼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손길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먼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마음으로 섬길 때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소외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이 그들 가까이 있어야 한다. 신명기 24장 19-

22절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서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19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 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신명기24:19-22)

우리의 필요 만을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도와서는 안된다. 그들이 쉽게 얻고

이용가능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또한 돕는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다.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지역사회에 내밀고, 사랑을 실천 할 때 교회는 더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교회가 이웃의 낯선 외부 사람과 나그네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은 어디에나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 아프리카의 말라위,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아시아의 예멘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에만 굶주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들 외에 전세계적으로 7억 명이 넘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1천6백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굶주린 채 등교하고 있으며, 9명당 1명은 배고픔을 끊어 안고 잠자리에 드는게 현실이다.³ 기아 퇴치를 위해서 세계가 노력을 쏟고 있어도, 완전히 퇴치하는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필요하다.

미국처럼 부유한 선진 국가라고 해서 배고픔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굶주리는 이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는 근본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³World Food Programs, "10 Facts about Hunger," last modified September 30, 2015, <https://www.wfp.org/stories/10-facts-about-hunger>.

끓주리며 소외된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지 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음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 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 지니라.(신15:11)

주변을 잘 살펴보면 가난한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 그들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교회가 손을 내밀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주변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은 더구나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 그 사랑이 지역사회로 뻗어 나가게 할 통로는 바로 교회이다.

소외된 이웃을 통해 예수님을 섬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도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세상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할 수록 교인과만 관계를 갖게 된다. 신앙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나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달라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단절되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사회를 외면하게 된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교회와 지역사회에 생기는 장벽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35-40절에서처럼, 교회가 결국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작은 자는 어린아이나 연로한 사람일 수 있다. 심신이 가난하거나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 또는 육신과 경제적으로 약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 밖에서 자신의 필요를 잘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일 수 있다.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25:35-40)

교회와 성도들은 소외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 일상 생활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만나지만 외면한다. 결국 주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잘 한다. 식당 봉사나, 주차요원으로 섬기고, 찬양 대원 또는 봉헌 위원으로 섬긴다. 하지만 교회를 나서게 되면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결국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 합리화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외면한다. 시내

중심가에서나 또는 신호등 앞에서 불편한 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사연과 육신의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 단지 돈을 모아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먼저 여겨야 한다. 말씀에서처럼 옥에 갇힌 외로운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로 갇히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하기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한다. 이것이 곧 이웃사랑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가 교인과 이웃을 구분하여 섬기려 하기 전에,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19:17)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끊임없이 다가선다면 결국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소외된 자들을 섬기게 된다.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사회봉사

우리는 쉽게 좋은 말이나 권면을 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말이나 권면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교회에도 쉽지 않다. 지역사회봉사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현장이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된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지역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그들을 믿음의 말로 위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야고보서 2장 14-16절의 말씀처럼, 허기지고 추운 이웃을 실제로 먹이고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사랑을 외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으로 바로 영혼 사랑의 실천인 것이다.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약2:14-16)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교회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 이웃이 교회와 삶을 함께 나눌 터전인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도 채울 수 없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손길로 다가서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6-18절 말씀에서처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6-18)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밖에 없는 것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돌려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도 이미 도움을 받은 자임을 상기하면서 시작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외친다면 교회 밖에서도 실제적인 행함으로 이웃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역사회봉사다.

소외되는 자들을 환대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함 받고, 배고파 하고, 고통 받는 자들에게 찾아 가셨다. 억눌리고 무시함 받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것처럼, 교회도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역을 해야 한다.⁴ 교회 안에서 양육과 예배와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마을 그리고 도심지와 버스정류장 어느 곳에서든지 소외된 자들에게도 교회는 나가야 한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교회는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교회는 방문자나 새 신자도 반겨야 하지만 교회 밖의 낯선 사람들도 환대해야 하는 것이다. 헨리 브린튼(Henry Brinton)에 의하면 ‘환대하다(philoxenia)’의 그리스어 의미는 “낯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다. 외면되고 방관 되어지며

⁴ Henry G. Brinton, *The Welcoming Congregation: Roots and Fruits of Christian Hospitalit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8.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은, 고대시대에도 낯선 사람이라고 “두려워(xenophobia)” 해서 외면했다,⁵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낯선 자로 취급을 하고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낯선 자들을 우리도 환대하며 사랑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 소외된 자들을 도우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과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만큼 영적인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요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여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임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과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을 환대하며 나누는 사랑이 육신적인 도움과 함께 영적인 필요도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난과 여러 어려움에 고통 당하는 영혼을 간과하지않고 돌보는 것에서부터 가능하게 된다.

⁵ Brinton, *The Welcoming Congregation*, 9.

⁶ Robin J. Trebilcock, *The Small church at Large: Thinking Local in a Global Contex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64.

지역사회 봉사는 지역 선교의 현장

교회가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교회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직접 교회를 찾아 교회에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의 큰 교회들이나 성장하는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 나오는 방문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 헌터(George Hunter III)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탐색하며 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먼저 교회에 연락하여 접촉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회당에서 기다리시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그들을 만날 기회를 만드셨다. 또한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가능하면 만남의 접촉 점을 찾으셨다.⁷ 교회가 스스로 찾아 오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육신적,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야 한다. 교회는 함께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영향력으로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⁷ George G. Hunter III, *Radical Outreach: The Recovery of Apostolic Ministry & Evangelis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177.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열심인 교회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들이지만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것은 미약하다. 미국에 있는 한국이민교회도 여전히 선교에는 열심이다. 하지만 이웃을 선교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한다. 헌터(Hunter III)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줄고 있는 반면 교회 밖의 대중들은 증가되어 가는 상황이라 한다. 요즘 미국에서 교회와 관계 없는 세상 속의 일반인의 수가 1억2천만이 훨씬 넘어서, 거의 세계의 3번째로 큰 인구 분포가 되었다. 결국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거대한 추수의 장소가 되는 선교 지역이 된다는 것이다.⁸ 눈앞의 가장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하고 큰 추수할 땅을 외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 지역이 아닌 타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가까운 지역사회를 선교지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대상에서 지역사회를 간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 밖의 사람은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인이 감소하는 교회가 무려 80퍼센트 가까이 된다. 설령 성장하는 약 20퍼센트의 교회도 수평 이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단지 1퍼센트만이 새롭게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⁹ 그래서

⁸ Hunter III, *Radical Outreach*, 185.

⁹ *Ibid.*, 186.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기에, 그들의 증가와 그들의
필요만큼 교회가 지역사회에 다가서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지역 선교이며
지역사회 봉사인 것이다.

제 IV 장

작은 이민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지역의 상황

교회의 대략적 상황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리빙스톤교회)는 창립 38년이 되는 교회로서 한인이민자들이 뉴저지로 많이 오면서 이민 초반부에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던 그 때에 세워진 교회다. 개척한 초대 목사님이 다른 교회 사역을 위해 떠나면서, 그 후에 연합감리교회의 “목사 지명(Appointment)” 제도로 담임목사가 아홉 번 바뀐다. 개척 초기에 부흥하던 교회는 이제 30여명 미만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다. 리빙스톤에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며, 리빙스톤에 살아도 30여분 운전하여 자녀를 위해 큰 교회에 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리빙스톤교회의 주일학교부터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다른 주의 대학교로 가면서 뉴저지를 떠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상도 있다.

담임 목사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 교인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70대와 80대의 성도들이며, 나머지 교인들은 60대의 가정으로 거의 모든 성도가 교회개척 이후로 함께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과거의 교회가 부흥했던 좋은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아쉬워한다. 대부분이 은퇴한 상황이며 몸도 불편하고, 부흥은 원하지만 마음과 몸과 신앙도 열성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워 한다. 주일예배만이라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하기를 바램은 있지만, 막상 새로운 것을 시도 하기에는 힘들어하며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이나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오지 않고 이사하거나 세상을 떠나 교인이 줄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닫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리빙스톤교회의 교인들도 미래를 염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교회에 새로운 도전으로 신선함과 부담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지역의 상황

리빙스톤 교회가 있는 리빙스톤은 뉴저지 주에 있는 타운으로, 주의 인구는 9백만 정도로 50개주의 11번째 크기지만, 리빙스톤의 인구는 약 3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주민의 평균 가구당 수입이 12만 달러로서 미국의 가정 평균 소득의 2배정도다. 비교적 경제력이 나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타운 인구의 2퍼센트가 넘는 주민이 저소득층이나 극빈자로 남아 있다. 카톨릭 인구가 1/3을 차지하는 반면에,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이 40 퍼센트 이상이 되며, 기독교의 인구는 약 15퍼센트가 된다. 유대인 타운이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과 회당이 많다. 타민족 사람들이 타운 인구의 20 퍼센트가 되며, 비교적 중국인이 아주 많고 인도 사람도 주요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¹ 뉴욕의 맨하튼까지는 1시간정도의 거리로, 통근의 편리함과 교육의 도시로서 학군이 좋아서 중국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대략 천명이 안되는 것으로 인구조사 결과에 나와 있지만, 이삼십 년 전보다 한인들의 유입이 많지 않아 줄어드는 현상이다. 40분 정도의 거리에 큰 한인 타운 안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리빙스톤에는 2개의 작은 한인 이민교회가 있다. 그리고 리빙스톤교회가 그 중에 하나로 뉴저지의 이민 초반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있다.

리빙스톤 주변지역에는 몇개의 주요한 지역사회 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다른 큰 도시만큼 급식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음식이나 식료품과 옷을 제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그 중에는 한해에 2만끼니 이상의 식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온 성공회의 토니스키친(Toni's Kitchen)이 있다. 그리고

¹ City-Data, "Livingston, New Jersey," <http://www.city-data.com/city/Livingston-New-Jersey.html>.

매달 200여명의 필요를 채우는 유대교의 보로코셔식료품저장” (The Borrow Kosher Food Pantry)이 있고, 매주 50여명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아프리카 감리교회의 “하늘의 만나” (Manna From Heaven) 가 봉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센터에서 하는 “소망의 지평선” (Horizon of Hope of the Oranges)과 구세군과 침례교회에서 식품이나 식사를 마련해주는 봉사 단체가 있다.

이러한 지역의 봉사 단체들과는 다르게 교회와 지역의 특성상 작은 이민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교회 밖의 지역사회와 교회 안의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 있지만 그러한 차이와 여러 종교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하기에 쉽지 않게 된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뻗으려고 장소를 제공하기위해 가끔씩 교회를 개방하면,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 한인들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체육관을 오픈해도 대부분 지역사회의 한인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며,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과제물을 도와주는 일을 제공해도 대부분 한인학생들만 온다. 지역사회를 향한 여름성경학교도 극히 소수의 타 인종이 있기는 하지만 한인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지역사회에 깊고 폭넓게 들어가서 나누며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앙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가서는 것이 한인이민교회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한인교회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며, 바로 이 지역을 도와야 할 이웃이 리빙스톤교회인 것이다.

지역사회 봉사의 필요성

지역사회 봉사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먼저 선교의 열정에서 시작한다. 교회는 선교 보고를 통하여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또한 각 기관들(남.녀 선교회, 청소년, 젊은 부부 그룹)에서도 선교는 활성화 되어있다. 이러한 선교의 열정이 점점 지역사회봉사로 향해야 한다. 로빈 트레빌콕(Robin Trebilcock)에 의하면, 아마존 같은 세계 먼 곳의 부족을 찾아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건물 밖의 지역에 찾아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선교의 개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제는 교회 앞의 거리나 주변지역의 구석진 곳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² 교회들이 이전에 세계 선교에 쏟던 열정을 이제는 지역 선교에 손을 내밀어야 하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에 있다.

해외선교에 쏟던 열정을 동일하게 지역선교에도 쏟아야 할 때다. 그 이유는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기관이나 단체들도 이제는 시대에 맞추어 달라져야 한다. 트레빌콕(Trebilcock)에 따르면, “교회가 선교와

² Trebilcock, *The Small church at Large*, 19.

성장이나 사회봉사 같은 것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작은 교회는 그런 현실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³ 그래서 이민 교회도 이런 변화와 현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이민 교회도 현상유지와 구습을 지속 하는 것보다 변화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봉사가야 말로 변화에 직면한 미래의 가능성이기에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교회의 사명

이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교회 사명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봉사는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연적인것이다. 데이비드 레이(David Ray)는 교회를 3M으로 정의하고, Ministry(사역)와 Mission(사명)과 Maintenance(유지)로 나타내면서, 사역과 유지는 결국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문밖의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사명’ 보다는 예배와 교육과 유지만을 위해 몰두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³ Ibid., 29.

것이다.⁴ 물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가지 모두 서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사명’을 제쳐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 몰입할 수 없다.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주의 사랑과 복음의 영향력을 먼저 교회 밖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런 중에 교회의 ‘사역’과 ‘유지’도 지역선교라는 사명을 통해 돌파구와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안에서 사랑하듯이 지역사회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교회의 이웃을 찾아 나가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 내부도 더 충만해진다. 교회가 유지와 지탱 뿐만 아니라, 성장하려고 하는 열정과 에너지와 자원을 과감히 밖으로 쏟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존재이며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도움과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자체로도 생동감 생기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⁵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교회는, 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는 주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속해있는 지역 사회에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것이 잃은 자를 찾아 나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

⁴ Ray, *The Big Small Church Book*, 120.

⁵ Brinton, *The Welcoming Congregation*, 93.

하지만 교회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장하려는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쉽지않다. 이웃사랑을 위해 손길을 지역사회로 향한다면 지역사회도 교회도 살아나기 시작 할 것이다.

교회가 소외된 사람이나 방치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어떤 고정관념에 박힌 테두리 안에서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예수님도 고정관념을 넘어서 상하고 깨어진 세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다.⁶ 성경말씀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세상”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와 동료와 교인들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잊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다. 니드햄(Needham)은 무시하고 천대하기 쉬운 사회에서, 그런 경향을 거스르기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수고하며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⁷ 세상이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만약 교회가 소홀히 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신다면, 거기에 계신 주님을 놓치게 된다. 또는 주님과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 성취에 만족하고 있게 된다.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 버리고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사회가 돌보지 못하거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⁶ Needham, *When God Becomes Small*, 127.

⁷ *Ibid.*, 127.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가능한 이웃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

많은 사람들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여길 때, 교회는 그 상황을 사랑을 나눔 통로와 기회로 보아야 한다. 헌터(Hunter III)에 의하면 산업혁명으로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던 18세기에, 영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이 교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가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을 뻗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는 교회의 손길이 이르지 않고 외면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다. 교회의 기준과 관점과 제한선을 넘어서 이웃에 다가설 때, 교회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⁸ 세상에 대한 편향된 주장과 전통에서 교회가 나오면, 교회 기준에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에게만 손을 내민다는 조건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박스에 포함되지 않는 가능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사람들” 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

리빙스톤에서 지역사회 봉사에 나서려 하면 여러가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나타난다. 이민 교회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종교들이 많은 다른 문화의 이민자들을 만나게 된다. 백퍼센트 한국인1세로 구성된 이민 교회가 그들이 이웃이라고 해서

⁸ Hunter III, *Radical Outreach*, 62.

쉽게 한국사람들을 만나듯이 하지 못한다. 또는 교인들과 친교 하듯이 지역에 다가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민 교회에 특별히 주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장애물을 기회로 여기며 교회가 손길을 내밀어야 할 주의 사랑과 복음에 ‘가능 자’ 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교회와 함께 하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어려워도 이웃을 향하는 교회

교회는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교회 밖에서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전도 폭발’ 과 ‘한 영혼 데려오기’ 등 여러가지 전도 축제같은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로 주변의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장단기 선교나 계절마다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선교지의 교회나 신학교와 현지의 필요를 돕는 일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돕거나 지원하는 선교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에 열심인 만큼 지역사회에도 열정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교회 자체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해외 선교는 당연히 여기게 되지만,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봉사는 다른 영역으로 생각한다. 교회의 열정과 인력, 재정같은 자원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한다. 또한 이민

교회는 스스로 지탱하기에도 예산과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울 때가 흔히 발생한다.

이민 교회 중에는 크기와 관계없이 재정과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려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교회의 크기나 출석 인원과 재정능력에 큰 차이 없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큰 이민 교회는 오랜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성장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도중에 교인이 줄어들면서 매월 갚는

용자금의 부담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작은 이민 교회는 독립하여

유지하기조차 힘들어 다른 곳에 열정을 가지는 것은 더 어렵다. 작은 이민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꾼과 사역 자도 부족한 상황이고, 때로는 어린이

사역 자도 없어서 새로운 교인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들이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열정과 사역을 교회 밖 지역사회로 방향을 돌리는 시작은 쉽지 않게 된다.

존 잭슨(John Jackson)에 의하면, 교회와 교인들 자체로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해 있어서, 교회 밖의 필요에 관심과 열정을 쏟기 보다는

자체의 문제나 어려움에 빠져들어 가기가 쉽다는 것이다.⁹ 그래서 교회 내부의

상황만이라도 개선되어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열의

만큼 교회의 상황이 뚜렷이 달라지거나 좋아지지 않는 현실이기에 작은 이민 교회도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안주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반복의 악순환을 벗어나고

⁹ Jackson, *Pastorpreneur*, 55.

오히려 교회 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뻗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교회는 활력이 생길 것이다. 지역사회봉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지역사회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폭풍 속으로 나가야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여러 현실과 통계로 인하여,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 성장을 위한 자구책이나 방안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 노력에도 교회 내부에서는 위축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레너드 스위트 (Leonard Sweet) 박사는 교회는 겁먹고 무기력하게 있기보다는 “폭풍”을 향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교회가 폭풍의 물이 무서워 나가지 못하면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교회는 물속에 빠져가는 잃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부르신 사명이 있다. 그 영혼들을 위해 폭풍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더 튼튼히 서게 된다.

교회가 어려워 진다고 해서 교회 내부의 존속과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한다면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태만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도 활력을 얻기 시작한다. 교회들이 어려워진다고 할 때 이 폭풍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현상유지가

¹⁰ Leonard Sweet,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37.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며 힘을 얻는다. 상황적 이유를 붙들고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된다.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감당하게 된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자 안에서 편하게 바람결을 피하고자 안전이 보장된 것을 원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가 쉽지 않다. 스윗(Sweet)박사는 폭풍 중에 닻을 내린 정박중인 해안가가 가장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가 항만에 바짝 붙어 있으면 더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기 때문이다.¹¹ 위험부담을 줄이려고 또는 두려움을 감수 하지 않기 위해 지체하고 생각에 머무르고 있으면, 교회는 커다란 모험 없이 유지될 것 같지만 오히려 폭풍을 피하려 정박한 배처럼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밖의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어려움을 뚫고 지역사회로 향해 더 약진해 나가야 한다. 교회 자체와 교회 안만 돌보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정을 쏟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교회가 안에서만 머무르면, “믿음 안에서 가장 큰 모험은 어떤 모험도 안하는

¹¹ Sweet,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149.

것이다”¹² 와 같이 된다. 교회가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전한 경계선을 박차고 일어나 떠나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뚫고 나가야 할 폭풍이 있고, 지금이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로 향할 바로 그런 때다.

안주하면 주저앉게 되는 결과로 흐르지만, 진취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새로운 가능성에 돌입하게 된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고린도후서5:22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여러 다른 상황과 처지에도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저 지나치기를 원치 않으신다. 교회건물 밖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교회가 손을 뻗쳐 나가 사랑과 보살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통로가 되어 교회는 안에서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도 나가 나누는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스위트 (Sweet)박사는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컵을 축복할 때에, 빵은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결합” 으로 그리고 컵은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연결” 로 표현되어졌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¹³ 이처럼 교회는 안에서 충만한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리역할을

¹² Ibid., 149.

¹³ Leonard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Living with a Grade Passion* (Colorado Spring, CO: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7), 153.

해야 한다. 그들과 교회 그리고 그들과 주님으로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사랑의 빵과 컵이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다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실현 되는 것이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위트 (Sweet)박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통로가 된다.¹⁴ 상하고 부서진 사람을 맞이 하여,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우리 자신도 어차피 긍휼함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 하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13:3)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고 있는데, 이 통로가 안 움직이면 막히게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하고 그래야 더 활짝 열린다.

¹⁴ Leonard Sweet,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 CO: David C Cook, 2010), 28.

나누는 사랑에서 받는 사랑

지역사회 봉사는 단순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빛진 자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나눔이라는 결과로 실행하게 된다. 교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나가 베풀 때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 오게 된다. 사도행전 9장36,39절에서도,

36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행9:36,39)

베풀며 함께 하고 나누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다.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형편이 되고 시간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내킬 때만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을 나누어 온 것이다. 물론 처지와 기회가 될 때만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또는 어떤 행사처럼 일시 방문하여 사진 찍고 나오는 정도의 지역사회 봉사도 있다 하지만, 과부로서 살아가기에 쉬운 생활이 아니었을 것인데, 다비다는 아픔이 있는 과부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 갔다. 과부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옷을 친히 만들어 입힌 일에만 감동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옷들에 담겨져 있는 그녀의

사랑과 나눔의 삶 때문에 그녀를 떠나 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나눔 사랑으로 다비다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봉사가 섬김과 구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서로 섬김으로 주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지역사회봉사의 현장에 나타난다.

지역사회 봉사는 의무감과 억지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이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다가서서 “다시 예수님 화(rejesus)” 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¹⁵ 이런 지역사회의 섬김은 교회의 “Rejesus(다시 예수님화)” 가 되어 교회는 더 활력이 넘치게 된다.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기면 개인과 사회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다. 사랑 할만한 조건에 맞는 이웃을 찾아 손을 내민다면, 매순간 만나게 되는 이웃을 품기에 쉽지 않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서도 한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지만 사랑할 만한 대상과 조건을 찾기에 쉽지 않았다.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¹⁵ Frost and Hirsch, *Rejesus*, 34.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10:25-37)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는가?’ 에 대한 의문도 아니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좀 더 잘 사랑하며 살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도 아닌, 사랑할 대상과 조건을 묻는 듯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29절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이웃은 기준과 조건에 맞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할 만한 이웃을 찾게 되면 사랑해보겠다는 가정이 내포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에서 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 하지만 교회가 다가설 이웃을 선택하려고 찾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대답해 주시기 전에 관점을 율법 교사에서 이웃으로 바꾸어서, ‘누가 사랑할 만한 이웃인가?’ 로부터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로 전환하여 말씀해 주신다. 사랑할 만한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진정한 이웃이 된다. 결국 먼저 사랑하니 이웃이 되는 것이다.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교회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교회 자체가 지역사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의무감에서 보다, 지역사회 한가운데서 교회가 이웃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을 때 지역사회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 교회가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이웃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웃이 되기 전에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다.

드러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주님 섬기기

교회들은 오히려 큰 일은 앞서서 잘 한다. 이민 교회에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맡은 직분은 잘 감당한다. 또한 교회에서 양육 받고 성경 공부하며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어떤 드러나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별로 그 일을 반기지 않을 때가 있다.

또는 행사 차원에서 가끔씩 지역사회 봉사를 했다는 만족감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미셸 허쉬버거(Michele Hershberger)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사소한 일 가운데 어려운 자를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¹⁶ 작고 평범한 도움의 손길로 받는 사람과 주는

¹⁶ Michele Hershberger, *A Christian View of Hospitality: Expecting Surprises*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9), 97.

사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를 해주는 것도 소중한 섬김이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되고 낮은 사람을 맞이하면 나누는 그 사랑이 교회에도 충만하게 된다. 이런 작은 섬김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도 섬기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¹⁷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환대할 수 있게 한다.

스윗(Sweet)박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같이 되며,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일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자 마음 먹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 된다. 작은 일 같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는 순간이다.¹⁸ 그저 일상생활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교회는 그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가는 지역사회봉사는 작은 일 같지만 커다란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

¹⁷ Ibid., 130.

¹⁸ Sweet,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116.

지역사회봉사 방법

교회들이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흔히 해오는 일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건물의 일부에 장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고품 할인 판매점(thrift shop)’이다. 중고품할인판매점은 지역사회와 교회에 유익하면서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버리면 낭비되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기부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옷과 신발에서부터 많은 생필품과 새로운 물건같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1달러에서 몇 달러 정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서민을 돕고, 그들의 발 걸음이 교회에 이르게 하는 작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교회 건물이 주중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교회 안과 밖의 노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교회재정을 도울 뿐 아니라, 이 재정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일은 지역사회봉사의 일환으로 교회들이 수십년 동안 장기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해오고 있다. 세상 경제와 현대화에 관계없이 잘되고 있다. 소도시나 어느곳에서도 필요하여, 이미 많은 수요자와 기부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중고품할인판매에 지역사회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

와도 관계없이 가능하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서로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연결과 순환의 좋은 예이다. 지역 안에서 기부하는 이들도 물품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만족해 하며, 필요한 자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 양측에 유익이 된다. 또한 교회는 그들에게 주고 받는 통로가 되어 지역사회안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웃을 돕는다.

최근에는 교회건물의 남은 토지 일부를 개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텃밭에 유기농 채소를 키워 서민들이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식탁을 채우는 일을 돕는다. 교회의 남은 터를 사용하는 유익도 있지만, 은퇴하고 연로한 교인과 이웃에게 도시에서 채소를 가꾸는 일거리로 자연과 친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관계를 통하여 공존과 나눔의 현실이 지역과 교회에 이루어진다. 이는 쉽게 사먹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공해 식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좋은 예이다.

교회에서 자주 하게 되는 다른 것은, 식품을 기부 받아 모으는 것이다. 마른 음식이나 캔 또는 박스 음식들이 집에 많이 쌓여 있던 것을, 그것이 더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회에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간 보관되고 기본적인 유용한 식품들이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주로 시리얼과, 땅콩 잼과 실은 보관 우유와 마른 과일을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식품 기부의 모음은 절기 별로 또는 감사절 전후로 많이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단체나 그룹 또는

학교에서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쉽게 참여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좋은 방법이다.

미국 교회도 많이 하게 되는 바자회는 Rummage sale(자선 바자), Bake sale(빵 바자), Food festival(음식 축제)와 같은 형태로 열린다. 한인 이민교회는 교인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지역의 한인들을 주로 상대로 한다. 하지만 한국음식이 많이 알려진 상태라 때로는 다른 외국인들의 관심이 있어서 갈비와 불고기 뿐만 아니라, 김밥과 잡채도 종종 찾고 김치까지 사가는 외국인도 가끔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은 한국음식을 좋아해서 리빙스톤처럼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발걸음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음식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확대하고, 음식을 통하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나눔과 교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 모아진 돈으로 지역사회를 돕거나, 재난과 재해로 다른 지역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해 준다.

이렇게 각각의 개체 교회의 특성과 그 지역에 맞는 맥락에서 지역사회봉사를 하며,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다른 큰 교회들처럼 해낼 수 없을 때도, 레이(Ray)는 도시 근교의 교회들은 차라리 지역사회에 재원을 보내는 것 보다,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위한 장소가 부족해서 언제나 필요한 지역사회에 교회 건물이나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상 유용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¹⁹ 각 교회가 잘 해낼 수 있는 특성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필요가 있기에, 어떤 특정한 교회만 선교 사명과 지역사회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빙스톤교회도 작은 이민 교회로, 여러 민족과 많은 종교가 있는 이 작은 타운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다른 봉사 단체나 신앙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알아야 한다

교회도 지역사회를 알아야 그들의 위치와 관점에서 제대로 다가설 수 있다. 잭슨(Jackson)은 그 지역에 맥도날드 주인이 교회나 목사보다 그 지역사회를 더 잘 알고 있는 형편이기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지역사회를 좀 더 잘 알고 있어야 어렵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적합하게 채우고 도와주며, 아픈 자를 찾아 도와주는 것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 중심의 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지역을 알아가는데 소심하게 되는 것은 교회 건물 밖을 다른 세상으로 치우쳐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가 속해

¹⁹ Ray, *The Big Small Church Book*, 130.

²⁰ Jackson, *God-Size*, 81.

있는 지역이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상이 아닌 것이다. 지역을 알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야 지역사회 봉사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가 원하는 방식에서 무조건 주입식으로 교회가 갖다 준다 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의 방법대로 만나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이다.

리빙스톤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지역사회 신문들이 있고, 그 신문들은 지역사회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여러 관점에서 자세히 다양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과 특히 교인들은 그 신문을 눈 여겨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관심이 되지 못하고,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한인 이민 교인들은 차라리 미주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를 자세히 읽는다.

그 지역사회 신문들은 지역사회의 종교적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단체 활동과 구제나 학교 활동과 도서관이나 소방서와 기타 관공서의 활동까지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시청의 지역 업무부터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정보와 지역사회사업체들의 활동과 슈퍼마켓의 정보까지, 지역사회안에서 교회가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고 구호품을 가지고 나가 그저 나누어 주고 돌아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알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봉사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교회건물의 장소와 시설과 설비들의 자원들을 사용하여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²¹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중독자들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 이라든지 또는 노숙자 자들을 위한 ‘저 체온 방지 프로그램’ 과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신앙 단체, 즉 공공 단체나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손길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밖으로 손을 뻗치지만, 교회 안의 것을 이웃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와 같은 장소를 특히 선호하며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다.

오직 예배의 공간과 기도의 공간 또는 교회 프로그램만을 위해 특정한 시간만 사용하던 빈 공간을, 이웃과 지역의 단체들에게 나누어서 밖의 낯선사람들을 맞이하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돕는 것이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는 봉사보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몸과 돈과 자원이 나가서 돕고 돌아오면 되지만, 교회의 일부를 내놓아 나누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교회를 예배나 기도가

²¹ Brinton, *The Welcoming Congregation*, 95.

아닌 신앙의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교회건물을 사회에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가는 것은 일부를 들고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도록 환대하는 것은 교회의 많은 부분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다.

물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예배와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교회가 불편함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환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고 품는 것이며,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환대하면서 받는 핍박과 비난과 반대에도 흔들림없이 지속하셨다.²² 교회도 여러 상황과 전통에서 건물을 함께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안 맞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교회 중심적 편의와 이익에서 나와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이를 환대하기 위해 교회가 나서서 내어 드려야 한다.

지역사회를 향한 준비와 격려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를 돕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가는 방법도 있다. 때로는 급박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에

²² Ibid., 117.

교회가 구제를 위해 신속히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때가 있다.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와의 그 밖의 주에서는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폭풍이나 허리케인같은 큰 수재나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한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바로 구제 현금을 모아서 수재민이나 피해자를 돕게 된다.

이런 구제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재해를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급히 돕고자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지연이나 중단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 미리 잘 준비 된 교회 일수록 지역사회봉사에 적시 적소에 힘을 실어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됨을 발견한다. 고린도후서 9장 2-5,9절에서도 그런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 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꺾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 하노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9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후 9:2-5,9)

예루살렘교인들이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아가야에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

준비해 오긴 했지만, 구제를 위한 준비의 일을 잘 마무리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시작한 구제 일을 끝맺을 수 있을 때까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5절) 것처럼 그들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동기부여의 일깨움으로 탄력을 실어 주어야 한다. 말씀처럼 마케도냐인들에게 본이 될 만큼 구제에 앞섰던 고린도 교인이, 구제를 위한 준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봉사와 구제에 열심히 어느 교회에도 난관에 쉽게 직면할 수 있다. 지역사회봉사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게 되지만, 뜻밖의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극복해야 할 일들이 시시때때로 발생한다. 도중에 구제를 준비하는 일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도움과 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 할 수 없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나 개인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헤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된 도움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적시 적소에서 효과적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되는 것이다.

필요 바탕의 전도와 지역사회봉사

잘 준비된 지역사회봉사는 선교지에 나갈 때 복음과 함께 의료와 교육 또는 식량과 그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준비하여 들어갔던 것과 같다. 로버트 피어슨(Robert Pierson)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주요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실제적인 결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필요를 채우는 것을 근거로 하는 전도라고 한다. “필요바탕의전도”가 신실하게 진행된다면, 어렵고 힘들 때 받는 도움으로 이웃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건네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전도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 방법이 성경적이라는 것이다.²³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은,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일어난다. 지역사회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채움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시작

이러한 사랑의 나눔은 행위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집중해 왔는데, 신앙이 지식으로부터 행위로 이어져

²³ Robert D. Pierson, *Needs - Based Evangelism: Becoming a Good Samaritan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6), 33.

나타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이클 프라스트와 알랜 허쉬(Michael Frost and Alan Hirsch)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은 바라보는 ‘관람자’에서 직접 실천하는 ‘참가자’로 전환될 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말씀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그 관계가 형성 된다. 이러한 행동은 마음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은 이런 “마음(heart)”을 감정의 근원이나 느낌 정도의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충실함과 헌신 그리고 의지까지 내포 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마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²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을’ 알아야 하며, 그 마음은 삶과 행동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한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지식만 습득한 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그리고 사랑을 전하며 행함으로 생명력을 나누어야 한다. 이웃을 향하여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행동이 지역사회봉사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믿음에서 마음과 행함이 중요한 것처럼, 지식과 생각과 마음은

²⁴ Frost and Hirsch, *Rejesus*, 150.

신앙의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행위로 반영되어 움직일 때 삶과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교회가 성전의 회의실이나 탁자에서 머리로만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의 문을 열고 나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악수나 포옹(hug)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익숙한 문화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음식과 옷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만큼 표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스위트(Sweet)박사는 이렇게 포옹하고 포옹 받는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nudge(슬쩍 밀기)로서, 그러한 터치와 접촉을 통해서 교회와 그들과의 연결이 가능해지며 서로 받아들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²⁵ 어쩌면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빈곤자나 노숙자들은 많은 외면과 거절로 마음이 상하고 비어있을 것이다. 교회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빈 마음에 진실된 포옹과 터치를 통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존재를 인정받으며 다가서기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역사회봉사의 시작이 된다. 현대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과학기술(Technology)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둘러 쌓여 살면서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²⁵ Sweet, *Nudge*, 238.

생의 깊은 곳에는 공동체의 소속과 관계를 갈급 해 한다. 그런 관계나 소속감의 결핍으로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러한 강박관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라는 사회적인 관점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교회 또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작은 이민교회들도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이웃으로 나가고자 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 교회안에서도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한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²⁶ 이런 문제들은 결국 교회가 주변을 돌보고 살피기에는 능력과 자원과 크기가 불충분 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런 관점이 결국 지역사회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 받는 귀한 유기체이다. 비교하고 경쟁하여 다른 사람보다 나아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보다 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외되고 부족함이 있는 이웃을 바라 보아야 한다. 필 니드햄(Phil Needham)에 의하면 우리와 교회가 그런 두려움과 방해물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는 가장 막강한 장벽파쇄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층의 기득권 밖에 남겨진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 가셨다. 가난한 자와 외인들과 하나님의 선택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여인들

²⁶ Needham, *When God Becomes Small*, 61.

또는 돌 던짐 받으려던 죄인 까지 맞이 하시고 품으셨다.²⁷ 교회도 사회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행하신 사랑을 따라 이웃에게 다가서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품으셨다. 예수님께서서 품으신 것처럼 교회도 성장이라는 강박관념 보다는 작은 이웃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

낮은 자의 감수하는 이웃사랑

소외된 자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적절하게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섬겼다. 다른 사람처럼 바쁜 일상을 위해 서둘러 가야 하는 처지일 수 있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치지 않고 바로 멈추어서 돌보았다. 자신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며 합당한 방법으로 그를 도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와 다시 돌아와서도 끝까지 도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웃을 향한 진정한 도움과 사랑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다.²⁸

그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처럼, 교회도 적절하게 도울 수 있기 위해 지역의

²⁷ Ibid., 61.

²⁸ Pierson, *Needs Based Evangelism*, 26.

필요에 주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희생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교회안에서도 현안이 급하거나, 해야만 할 급한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그 일때문에 도움이 절실해서 손 흔들며 외치는 이웃의 요청을 지나치는 상황에 빠져서는 안된다. 급한 일들 가운데 먼저 어려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멈추어 서서 그들을 위해 시간과 자원과 열정을 쏟아야 한다. 혹 개인적인 불편함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된다. 도움이 시작된 후에도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웃을 가족처럼 돌보는 진정한 사랑의 도움이 함께 해야한다.

진정한 환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면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하면서 가진 자의 위치나 좀더 높은 자리에서 단순히 의무감으로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서 도움을 받는 동안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을 경험해야한다. 그것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⁹ 그런 마음 없이 베푼다고 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받고도 마음이

²⁹ Hershberger, *A Christian View of Hospitality*, 168.

불편하게 된다.

그리고 환대하면서 도움의 조건으로 믿음을 먼저 받아 들이도록 하는 열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 지역사회 봉사를 나가거나 구제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리빙스톤처럼 다른 여러 문화와 종교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 속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그래야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설 수 있고, 다른 봉사 단체와도 협력하며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그 지역 안에 다른 봉사 단체와 사랑을 나누면서 더 포괄적으로 복음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같은 입장에서 도움

이민 교회에서 신앙의 삶은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다. 교인들은 외롭고 어려운 이민 삶을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하기도 했던 곳이 교회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친교 하며 이야기와 삶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왔다. 그들에게는 친인척이 미리 와서 정착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람은 처음 이민 와서 낯선 곳에서 언어의 불편함과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어렵게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 교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며, 미국에서 서서히 정착하게 된다. 룯기 2장 14-17절에서도 아마 룯이 낯선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겪게 되는 것이 이런 이민자 같은 삶이다.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볍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룻 2:14-17)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나 신실 함으로 따라 오긴 했지만, 모압 여인 롯에게는 낯선

이국 땅이었다. 오히려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인상과 반감을

생각한다면, 롯은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처지에서 이민의 삶을 시작한 셈이다.

거기에다 매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것

까지 쟁겨야 하는 어려운 생활 이었다. 고국을 떠난 후 10여년 만에 혼자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미 봉사와

섬김 이상의 삶을 나누는 사랑이었다. 더욱이 이국 땅에서 본인 스스로도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나누는 삶이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에서 더 어려운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은 알고 있었다. 그 효성은 보아스로 순환 되는데, 먹고 남을 만큼

넉넉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16절) 의도적으로 배려해서 롯이 더 많이 쉽게 도움을

받게 한다. 이것은 필요를 제공하는 도움 이상의 관대함이 가득한 사랑의 나눔

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극도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상황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 한다. 그러나 봉사에는 이런

관대함이 사랑으로 가득해서 넘쳐 나가야 한다. 작은 이민 교회도 이전의 어려웠던 처지를 생각하며 같은 입장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 넘치는 사랑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이 지역사회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성에 맞게 접근

교회가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별히 미국에서의 뉴저지라는 주와 그 중에서 리빙스톤교회가 있는 리빙스톤이라는 타운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빙스톤은 여러 다른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것이 고대 고린도의 특징과 비슷한 듯하다. 헌터(Hunter)에 의하면, 고대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어를 말할 수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정에서는 많은 다른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 다른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³⁰ 그곳에는 유대인, 그리스인, 이탈리아사람, 이집트 사람 그리고 시리아사람과 거기에다 아랍 사람과 아시아인이나 유럽인들까지 해서 지금의 이민 국가인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고린도의 그런 비슷한 지역적 상황과 처지가 리빙스톤에서도 나타나있다.

³⁰ Hunter III, *Radical Outreach*, 22.

그뿐 아니라 그런 특별한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다른 역할도 발견하게 된다.

헌터(Hunter)는 고린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것 만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향해 현재의 교회들이 손을 뻗쳐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계획이나 예산이나

기도와 같은 대응들이 부족한 것이다.³¹ 우선 다양한 민족과 문화 속에서 지역사회를

봉사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일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이민교회의 진취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작은 이민

교회의 특성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리빙스톤의 이런 특성이 고려된다면, 잘

준비된 접근을 통해서 지역사회봉사는 더 활력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봉사의 실행

지역사회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

한인 이민 교회는 대부분 선교에는 많은 열정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열심히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 바로 곁에 지역의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다른 세상으로 구분에서 동떨어진 곳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리빙스톤교회도 도미니카에 선교 센터와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곳에 선교도 가서 섬기고 봉사했지만,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³¹ Ibid., 25.

직접적으로 나눔을 가진 적이 없다. 드물게는 다민족연합의 일환으로 절기 때 미국 교회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으며, 한인 봉사 단체나 구제 단체에 재정을 조금 보내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설교나 친교와 속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해 나누면, 교인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듣고는 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신들 자체도 어려운 이민 1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한때는 이민 와서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이국 땅에서 옆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던 때가 있었다. 이민 와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70세가 넘어도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돕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몸도 점점 불편해가고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노후에 대한 염려까지 있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연스러웠다. 그들에게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볼 여유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그런 어려웠던 삶을 생각하며, 그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해 손을 내밀기 위한 어떤 발단이 있어야 했다.

또한 이웃에 사는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이 자신의 이웃 사촌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민자들과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왔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 중에는 많은 이웃이 매일의 일자리와 끼니 보장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 잘사는 미국땅에서도 광야에서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민자처럼 어렵게 살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이민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따뜻한 도움으로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들과 타당한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안에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 하기 위해 주님을 따라 지역사회를 향해 앞으로 나가야 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과 교회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때 생동감과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세상 속에도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작은 이민교회로서 이러한 새 일을 의욕적으로 감당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프로젝트 목표

지역사회와 교회 사이에 여러 다른 차이들이 있으며 교회의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도 있다. 그렇지만 점점 안으로 집중하고 안주하는 대신에 이제는 교회 밖으로 손을 내밀어 지역사회봉사를 감당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이웃에 활력과 영향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상황과 조건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타당성에 빠져서는 안된다.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밖으로 눈을 돌려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다. 그럴 때 장애물이나 한계와 조건들이 오히려 개선되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교회의 안과 밖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며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민 교회가 물과 기름같이 분리된 다른 단체라는 이미지에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상호 관계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작은 이민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며, 그것을 체험하는 지역사회가 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공감대 형성으로 프로젝트의 실행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교인들 전체를 설득하여 공감대를 확보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John)의 따르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먼저 의지해야 된다고 한다. 이것을 통하여 전체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지도부 팀의 관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³² 교회 내부에 ‘우리도 힘든데 다른 데로 손을 힘과 여력이 어디 있느냐!’와 ‘전에 없던 일을 왜 새롭게 해야 하느냐!’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는 이견들을 돌파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내부의 결속이 무너지면 지역사회 봉사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³² Jackson, *Pastorpreneur*, 62.

의욕적으로 성취해 나가고자 할 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선 함께 해야한다. 그 기획이 새로운 일이지만 결코 막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가 구체적이고 선명해야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같은 비전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 내부의 불협화음이 해결 된다면 교회 울타리 밖의 낯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안의 믿음의 공동체처럼 지역사회가 교회와 함께 사는 사회라는 것이 받아 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기 시작한다.

잭슨(Jackson)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인가에 이끌리어 압도 되어야 자신 안에 경계선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다고 한다.³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밖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이 열정이 교회를 지역사회봉사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기획의 실행 방법과 과정

³³ Ibid., 69.

이 프로젝트의 실행은 세가지 방법과 네 단계로 진행 하게 되는데, 먼저 금요일에배 때마다 식품 기부를 통해서 교회에 식품 모집을 시작한다. 이 식품 모집을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반에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식품들을 집에서 금요일에배 올 때마다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몸으로 직접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도우며,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매주 주일에 구제 현금을 따로 떼어 준비하여 모으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금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끊이지 않고 연결하게 된다.

먼저 식품 기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집에서는 넉넉히 사용하는 것들이지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것 조차도 없어서 굶주리기에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섬김이, 이웃에 큰 도움과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능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된다. 실제적으로 많은 구제 단체들이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그 구제 단체들에게 식품기부 모집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역사회봉사에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품 기부는 당장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돌보는데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구제를 위한 모금으로 여러 구제 단체들에게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금은 지역사회의 각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재정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구제 현금으로 미리 떼어 놓아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눔의 일상화를 가능 하게 하는 방법이다. 연로한 교인들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끼니 마저 어렵던 60년대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엌의 가마솥 옆에 둔 작은 항아리 단지에 몇 수저의 쌀을 밥하기 전에 먼저 떼어 모아서 구제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구제 모금은 어렵지 않게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꺼이 할만큼 호응이 좋다.

식품이나 재원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직접 나서서 자신의 시간과 육체 노동으로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현장에서 이런 나눔의 실제적인 체험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한다. 그뿐 아니라 지역봉사단체에서는 음식과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의 여러 곳에서 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해서 인력의 도움을 찾고있다.

대부분 작은 단체나 학교와 교회같은 곳으로부터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의 필수사회봉사 시간으로 봉사 현장에 찾아오기도 한다. 때로는 가족들이 주말의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년 그룹들이 예배 후에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할 때도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때로는 교회 밖의 청소년 친구들까지 교회의 활동에 들어와 함께 지역사회봉사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돕기도 하고, 다른 돕는 단체들과 협력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된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리빙스톤교회도 직접 현장에 나가 이웃들을 맞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중에 함께 사는 사회를 체험하게 된다.

다른 단체와 연합하는 방법

지역사회 봉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개체 교회가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 필요에 접근해서 돕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작은 교회나 교회 내의 소그룹과 청소년 그룹 또는 각 가족들이 다른 봉사 단체에 합류하여 그들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지역의 필요에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특별히 리빙스톤교회처럼 작은이민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어떤 부서나 조직을 형성하여 상주해서 지역의 필요를 찾고 그것을 채우기에는 인력면에서나 재정면에서 과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도 다른 지역사회봉사 단체와 연합하여 동역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연합 사역은,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사회안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어렵지 않게 지역사회 봉사를 시작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단체들은 이미 오랜 동안 지역사회 봉사를 잘 진행 해왔고, 그들은 수십년 이상의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전문성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사회봉사 단체들과 함께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들의 잘 정착된 체계 안에서 곧바로 지역사회에 실제적인 도움으로 다가 설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단체들도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득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봉사하게 되면, 작은 이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과 한계로 여겨지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연합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안에서 다른 단체들과 동역 하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지역사회봉사 단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역사회 봉사와 방법에 중점을 두고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이름으로 오래동안 지역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식품 저장(Food Bank와 Food Pantry)과 기아와의 싸움(Fight Hunger) 또는 굶주림의 종료(End Hunger) 그리고 무료급식(Soup Kitchen)이나 미국 급식(Feeding America)과 같은 봉사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나, 초 교파, 또는 여러 종교를 근거로 해서 지역 사회 봉사를 해오고 있다. 조금 큰 도시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더 많은 봉사 단체들이 긴요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다가서서 지역사회봉사를 한다.

하지만 눈에 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웃에는 다른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로버트(Robert)에 따르면, 연로한 어려운 노인들이나 무직자의 가장들 또는 마약이나 알콜 중독자들도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있고, 가정 파탄으로 가족이 분리된 어린아이들도 있다. 또한 삶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에 처한 사람들과, 갑자기 가난에 빠진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다. 이런 사람들은 배고픔 만큼이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³⁴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다 돌볼 수 없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봉사 단체나 공공 단체들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지역마다 다르게 어떤 부분의 도움이 더 요구되거나 그 필요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 맞추어 교회가 다가서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지역사회봉사단체들과 더불어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리빙스톤에 있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끼니를 채우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돕는 봉사에 나서게 된다. 급식을 지역사회봉사의 하나로 실행하게 된 것은, 많은 이웃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같은 곳과 비교할 때 세계에서 미국은 풍족한 나라이다. 그런 풍족함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굶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리빙스톤교회가 있는 뉴저지 주는

³⁴ Pierson, *Needs - Based*, 51.

미국에서 다른 주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주의 13퍼센트의 아이들, 그리고 14퍼센트의 노인들이 일용할 음식이 부족한 상태로 배고픔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³⁵ 그리고 7명당 1명이 여러 방법이나 통로를 통해서 식품 배급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³⁶ 이로 볼 때, 나라와 지역에 관계없이 식품제공으로 돕는 지역사회봉사는 절실한 것이다. 리빙스톤교회도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사회봉사를 하면서 그 필요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먼저 리빙스톤교회의 프로젝트는 기부한 음식들을 모아서 보내줄 합당한 봉사 단체를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여러 단체들 중에는 거리상 너무 먼 곳도 있었고, 어떤 지역에는 이미 많은 단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었기에 리빙스톤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단체를 찾으려 했다. 지역사회라는 연대감을 높이고, 이웃 시민들과 교회가 같이 사는 사회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고, 언제라도 직접 나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봉사 단체를 택해서 연합 사역을 하게 된다. 그 봉사 단체는 토니스키친(Toni's Kitchen)이며,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리빙스톤 교회는 지역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³⁵ Center for Food Action, "Hunger Pervasive in Garden State," <https://cfanj.org/hungerfreenj/hunger-in-new-jersey/>.

³⁶ USA Today, "America: 1 in 7 Rely on Food Banks," last modified August 17, 2014,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4/08/17/hunger-study-food/14195585/>.

토니스키친은 교회에서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성공회 교회에 부속되어 있으며, 35년 이상을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건물의 일부를 이 사역에 전담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난하거나 집이 없거나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나 연로한 사람들에게 옷과 식료품을 나누어주고, 직접 음식을 요리해서 그들을 불러모아 따뜻한 음식을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 봉사 사역을 위해 자신만의 식당과 부엌이 있고, 오래동안 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7만여 식사 급식을 해오고 있다.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정기적으로 와서 식사도 하고 식료품도 챙겨가며, 옷가지도 골라 가서 입는다. 토니스키친은 도시락과 식료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기도 한다.

기부된 식료품을 받아 모아서 저장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체계적으로 잘해오고 있는 토니스키친은, 지역의 필요를 잘 채우며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다. 많은 여러 단체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그룹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적절하게 잘 제공하고 있다. 현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바로 이곳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매주 4일간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토니스키친은 리빙스톤교회가 3가지의(식품모음, 현장의 자원봉사, 구제헌금) 서로 다른 부분에서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 프로젝트로

연합 사역하기에 좋은 곳이 되었다. 리빙스톤교회가 식료품 기부를 받아 모아진 것을 그 곳에 가지고 가서 분리하고 진열한 뒤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었다. 교회에서 모아진 구제 현금은 어려운 각 가정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니스키친에 주중에나 주말에 봉사하기 위해 직접 나가서 음식 만들고 서브하는 일에 자원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교회에 열려있었다. 또한 개인 사정과 시간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다른 요일과 다른 시간대에 다른 종류의 봉사를 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다. 개인의 생활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신축성이 주어졌다. 이민 사회에서는 일주일에 6일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기에 토니스키친은 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장소로 장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부된 식료품들을 나누어 선반에 정리 정돈하는 일은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어떤 때라도 가능해서 유익하다.

그리고 매주 수백 개의 ‘배낭가방’ 을 여러가지 종류의 식료품으로 채워 놓으면, 아이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한 주 동안 사용하고 돌아와서 다시 가방을 바꾸어서 채워가는 “가방” 프로그램을 토니스키친은 운영하고 있다. 12불이면 이 배낭가방 사역을 통하여 매주 한 가정이 부족한 식사를 채우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현금을 할 때 이 한 가정을 맡아서 매주 12불씩 기부하게 되면, 구체적인 동기 부여로 교인 한 가정이 몇 가정의 가방을 맡아서 돕는다. 막연한

도움이냐 구제보다 좀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헌금의 목적과 사용 용도가 있어서, 교인들을 더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

금요철야 예배와 새벽 기도, 그리고 교인들의 3일 금식 기도 중에 교회의 사명과 지역사회봉사와 리빙스톤교회가 나갈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 중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7,8)는 말씀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 전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무관심 한 듯 했으나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정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식품 모음

- 1) 금요철야 예배에 나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에 있는 식품을 함께 가져오기를 알리는 광고를 주일 후보에 1개월 동안 하기 시작한다.
 - (1)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 리스트를 봉사 단체와 의논하여 교인들에게 알린다.
 - (2)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품목:

선반보관우유, 땅콩 잼, 시리얼과 오트밀, 쌀 작은 백,
건포도나 마른 과일, 캔 고기와 수프, 캔 주스, 캔 파스타, 마른 콩,
그 밖의 신선한 식품, 샴푸, 치약, 비누, 페이퍼타올과 같은 커피.
 - 2) 매주 더 많은 사람들이 식품 모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1) 모아지는 대로 1개월에 한번씩 교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실어 토니스키친에 가서 커다란 식품 모음 창고의 진열 선반에 각 품목별로 정리 하며 봉사의 현장 경험이 시작된다.
2. 2단계: 청소년부 봉사 현장
- 1) 토니스키친의 봉사 담당 디렉터를 방문해 봉사의 일과 그들의 필요를 나누고, 리빙스톤교회가 연합할 사역을 의논 구성한다.
 - 2) 몇주간의 후보 광고 후에 중 고등부와 대학생들과 의논하여 지역 봉사에 참여할 대상과 참여할 시간을 알아보고, 그들의 시간과 봉사 단체의 필요에 맞추어 봉사자를 구성한다.
 - 3) 봉사자들의 신상명세서를 봉사 날짜에 맞추어 토니스키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등록하고 봉사 할 일과 날짜를 완성한다.
 - 4) 급식 장소에 매주 토요일 11시까지 모여서 다른 단체의 봉사자들과 오늘의 봉사할 일에 대해 소개하고 나눈다.

급식 장소의 테이블과 냅킨과 기타 식사 도구를 준비한다.
11시 30분부터 식사를 서브하기 시작.
 - 5) 봉사를 마친 후 제과점에 모여서 스낵을 먹으면서, 봉사의 일과 보람을 나눈다
 - 6)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 지역사회봉사의 경험과 은혜를 나눈다.
3. 3단계: 현장에서 성인들의 지역사회봉사
- 1) 자녀들의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나눔을 듣고, 많은 가정과 학부모들이 자신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됨.
 - 2) 참여할 어른들의 대상을 확인하고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알아 본 후,

토니스키친에서 필요로 하는 일과 부서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동역할 수 있게 구성한다.

(1) 대부분의 많은 교인이 토요일 저녁까지 일함으로 인해 주일 오후만 시간이 가능함을 확인.

(2) 토니스키친과 함께 할 사역이 그곳에서 저녁에는 없어서 주일 오후로 결정해서 구성.

(3) 주일 오후의 속회와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대를 옮기게 됨.

(4) 주일 예배와 친교 식사가 끝난 후 곧바로 지역사회 봉사 현장으로 이동.

3)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저녁식사 급식을 위해 급식 장소에 모여 다른 단체의 봉사자들과 만남과 소개가 이루어짐.

(1) 식당의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요리하기 시작.

(2) 한인들이 음식 요리를 잘하고 빨리 감당해서 다른 단체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만족,

언어 소통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없이 연합 봉사가 수월하게 진행.

4) 지역사회봉사후 나눔의 시간:

(1) 두가지의 반응:

- 급식 장소의 식당에서의 일이 연로한 분들에게 조금은 힘들었음,

-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감사와 은혜로 기뻐하며 흡족해 함.

4. 4단계: ‘한 가정 가방’ 돕기 모금

1) 매주 12달러로 가방 하나에 식품을 가득 채우면, 한주간 어려운 한 가정이 음식을 도움 받아 살게 된다는 것을 후보에 광고를 시작.

2) 매 주일마다 일반 헌금 시간에 12달러로 ‘한 가정 가방’ 을 위해 모금한다.

3) 많은 가정이 매 주일마다 이 모금에 참여하기 시작,

각 가정이 한 가방에서부터 열 가방 이상을 정기적으로 하게 됨.

4) ‘한 가정 가방’ 사역을 위해 모금 한 것이 정기적으로 보내어져 어려운 가정의 끼니를 돕게 됨.

5)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실행됨.

프로젝트 실행 후 분석과 평가

리빙스톤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낸 일은 있었어도, 이웃에 다가서서 이런 지역사회봉사를 이렇게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해 본적은 없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4개월간 준비하였으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연락하고 만나며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회의 대부분이 무관심하며 새로운 일의 시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지역사회봉사의 1단계에 참여하면서부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신앙이 행함과 실천을 통해 믿음의 성장으로 체험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지역사회봉사를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식품 모집하는 일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듯 했지만, 약 30퍼센트 미만의 교인이 참여했다. 아마도 집에 있는 식품들을 챙겨서 의도적으로 교회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하는 봉사를 하는 청소년들은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학교에서 사회봉사에 관해 어릴 때부터 배워서, 봉사라는 것이 삶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다. 청소년 그룹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 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했다.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주변의 이웃을 보살핀다는

생각에 오히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데 그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학생으로서 바쁜 일정때문에 정기적이며 주기적으로 봉사하기에는 어려워 했다.

지역사회봉사를 한 후의 청소년들의 보람과 자랑스러움을 보면서, 리빙스톤교인의 성인들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지역사회봉사를 시작했다. 교인 중에 여성들만이 참여했고, 20퍼센트 정도의 교인이 봉사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 남성들은 급식하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브하는 것이라 해서 선뜻 나서지 않았다. 봉사에 참여한 교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장소에 모여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요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수백명의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기와 야채를 자르고 요리하는 과정으로 몇시간 동안 집중된 일이었다. 그래서 힘들어 했는데, 65세 이상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워 하기도 했다. 반면에 그 일을 매우 잘 해냈고 다른 곳의 봉사자들과 팀워크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일을 마친 후에도 만족감이 더했다.

지역사회봉사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전심으로 일하며 보낸 시간 후에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은혜에 모두가 오히려 감사하며 밝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의 6일을 일하고 주일만 가사일을 돌보며 교회 봉사를 하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 후에

대부분의 하루를 봉사현장에서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웠다. 그럼에도 직접 현장에서 봉사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 해졌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봉사 현장에 직접 가서 땀 흘려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과 교회에서 식품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지속했다. 매달 12불로 한 가방을 식품으로 가득 채워서 한 가정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정 가방’ 봉사였다. 교인 중에 20퍼센트가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각 가정이 한 가방에서 열 가방을 맡아 구제 헌금을 했다. 이런 봉사는 매주 몇 가정을 돕는 다는 구체적인 동기 부여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지속의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때로는 재정적 지원만으로 이웃을 위해 할 일을 다했다는 그런 만족감으로 안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서서 교회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작은 이민 교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잠재된 능력이 있으며, 교회의 사명으로 지역사회봉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 특히 다른 봉사단체와 연합하여 봉사의 일을 증대함으로써

지역공동체로서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어 갔다.

앞으로는 이번 지역사회봉사의 경험과 열정을 연장해서, 주변 근교타운의 버스정류장이나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일 예배 후에 직접 찾아가는 봉사도 바란다. 청소년부와 성인들이 함께 나가서 소시지를 구우며 핫도그를 만들어 음료수와 스낵과 함께 그들에게 한 끼를 공급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봉사는 다른 봉사단체와 연합하지 않고도 작은 교회가 직접 찾아 나가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어려운 자를 찾아가는 봉사는 급식하는 특정한 장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가지고 가서 돕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예배 후의 예수사랑실천을 적용하며,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통해 몇번의 행사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부분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사는 사회를 교회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란다.

제 V 장

결 론

교회는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교회 행사들로 활력과 성장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으로 쉽게 연결되거나, 이웃과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교회 숫자와 교인수가 감소하는 통계로 인해 부담을 가지며, 교회의 유지나 생존을 위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교회 안의 중심으로 되어간다. 작은 이민 교회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민1세의 교회로서 존속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회가 집중하고 있을 때, 이웃이나 지역이나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을 안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교회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된다.

이제 더이상 교회가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도 그들이 필요한 이웃이며 함께 사는 사회다.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품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손을 뻗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나가 이웃을 품기 위해서는, 세상의 숫자와 크기로 지명해준 작은 교회라는 한계와 상자에서 나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 작은 교회는 없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이 이끄는 사명으로 지역사회에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 크기의 교회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가 리빙스톤 지역에서 38년을 자리한 작은 이민 교회로 이웃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지역사회봉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알게 되며, 교회가 밖의 지역사회와 주님께로 눈을 돌리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살아나게 된다.

교회 밖의 이웃을 돕던 열정이 속회나 작은 그룹이나 남녀 선교회의 모임과 사역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활력이 일어난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방문자가 늘어나거나 수적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봉사를 일상생활로 지속하는 것이 연로한 교인에게 부담스럽고 힘들어 다른 보충 제안이 필요함을 발견한다. 작은 개체 교회 혼자 보다는 연로한 교인들이 많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이민 교회와 함께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로한 교인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나가야 한다거나 음식으로 돕는다는 한정된 생각을 넘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회봉사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에게 제한된 도움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에 보다 적합하게 이르기 위해 작은 이민 교회와 지역사회봉사에 대해 더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이번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지역사회봉사중에 노숙자나 배고픈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이나 식품으로 도우면서 교회가 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살펴 보았다.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여러 봉사 방법들 중에서, 교회와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다른 봉사단체와 연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앞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가 있을 것이며, 교회의 특성에 맞게 봉사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지역사회봉사를 통해서 발견된 교회의 잠재력이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로 이어지며, 교회와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영향력으로 증대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 Benke, William and Le Etta Benke. *The Generation Driven Church: Evangelizing Boomers, Busters & Millennials*.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2.
- Brinton, Henry G. *The Welcoming Congregation: Roots and Fruits of Christian Hospitalit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09.
- Hershberger, Michele. *A Christian View of Hospitality: Expecting Surprises*. Scottdale, PA: Herald Press, 1999.
- Hunter III, George G. *Radical Outreach: The Recovery of Apostolic Ministry & Evangelis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 Jackson, John. *God-Size: Beyond Growth for Your Growth's Sake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 Jackson, John. *Pastorpreneur: Outreach Beyond Business as Usual*.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 Needham, Phil. *When God Becomes Small*.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4.
- Pierson, Robert D. *Needs - Based Evangelism: Becoming a Good Samaritan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6.
- Ray, David R. *The Big Small Church Book*.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1992.

- Speidel, Royal. *Evangelism in the Small Membership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 Sweet, Leonard. *Nudge: Awakening Each Other to the God Who's Already There*. Colorado Spring, CO: David C Cook, 2010.
- Sweet, Leonard. *The Church of the Perfect Stor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 Sweet, Leonard.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Living with a Grade Passion*. Colorado Spring, CO: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7.
- Trebilcock, Robin J. *The Small church at Large: Thinking Local in a Global Context*.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 Woolever, Cynthia and Devorah Bruce. *Leadership That Fits Your Church: What Kind of Pastor for What Kind of Congregation*.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12.

논문, 잡지

- Carney, Charity R. "Lakewood Church and the Roots of the Megachurch Movement in the South." *Southern Quarterly* 50, no.1 (2010): 60-78.
<http://ezproxy.drew.edu/login?url=http://search.ebscohost.com/login.aspx?direct=true&db=lfh&AN=85708131&site=eds-live&scope=site>.
- Finke, Roger. "The Quiet Transformation: Changes in Size and Leadership of Southern Baptist Churche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6, no. 1 (1994): 3-22. doi:10.2307/3511649.
- Stonebraker, Robert J. "Allocating Local Church Funds to Benevolence: The Impact of Congregational Siz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5, no. 1

(2003): 48-58. doi:10.2307/3512499.

Stonebraker, Robert J. "Optimal Church Size: The Bigger the Bette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no. 3 (1993): 237.

doi:10.2307/1386662.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Heejo Lee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uly 3, 1967

Parent's Names: Jeongkoo Lee and Ssnghee Na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Korea	Diploma	July. 26, 1990
Collegiate:	University of the Ozarks 415 N College Ave, Clarksville, AR 72830, U.S.A	B.S.	Dec. 17, 2001
Graduate:	Drew University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U.S.A.	M.Div	May. 14,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eejo Lee

Name typed

April 8, 2019

Date